



미국 스톱로스(Stop-loss) 보험시장의 지속 성장 가능성

이아름 연구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인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으로 인해 스톱로스(stop-loss) 보험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글로벌 보험회사의 미국 스톱로스 보험회사에 대한 대규모 인수·합병이 증가함. 중기적으로는 보험회사들 간의 경쟁 심화, 보험료 인하 압력, 손해액 증가 등으로 인해 스톱로스 보험시장의 성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시장 중, 스톱로스 보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규제리스크가 적어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유지될 것임

■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인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으로 인해 스톱로스(stop-loss) 보험시장이 성장하고 있음¹⁾

-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시행한 제도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개혁하여 의료보험료를 낮추고, 2014년까지 미국 전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무보험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함
-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직원 보험료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셀프펀딩(self-funding) 단체 건강보험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톱로스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 일반 단체 건강보험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상태가 좋을 때도 보험료가 비용으로 발생함
 - 반면, 셀프펀딩 단체 건강보험은 직원의 건강악화로 비용이 발생할 때 의료비를 기업이 직접 지출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일반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음

1) A. M. Best(2017. 8. 11), “Stop-Loss Insurance Market Continues to Grow”

- 스톱로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일정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면서 직원의 의료비를 직접 납부하고, 의료비가 일정 예산을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에 대납을 요구할 수 있음
 - 스톱로스 한도 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는데 스톱로스 보험료 자체는 일반 단체 건강보험 보험료에 비해 낮아 기업들의 가입이 증가함
- 한편, 셀프펀딩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톱로스 보험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보험회사의 미국 스톱로스 보험회사에 대한 대규모 인수·합병이 증가함
- 셀프펀딩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2002년 전체 기업의 50%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체의 60%를 차지함
 - 셀프펀딩 단체 건강보험은 최소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대기업이 가입을 많이 하였으나,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가입도 증가함
- 스톱로스의 순경과보험료(net premiums earned)도 2011년 67억 달러에서 2016년 143억 달러로 증가함
- 글로벌 보험회사의 미국 스톱로스 보험회사에 대한 대규모 인수·합병이 2015년과 2016년 사이 증가하였으며, 상위 10개사²⁾들의 순경과보험료가 스톱로스 시장 대부분을 차지함
 -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인 Tokio Marine사와 Sumitomo 생명보험회사는 미국 대형 스톱로스 보험회사인 HCC 보험회사와 Symetra 금융회사를 인수함
 - 캐나다의 Sun Life 금융그룹은 Assurant, Inc.의 임직원 복리후생 사업을 인수하였고, Swiss Re는 Independence Holdings Company(IHC)의 스톱로스 사업을 인수함
- 중기적으로는 보험회사들 간의 경쟁 심화, 보험료 인하 압력, 손해액 증가 등으로 인해 스톱로스 보험시장의 성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스톱로스 보험시장은 다른 건강보험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규제리스크가 적어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유지될 것임 **kiri**

2)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3개년 평균 상위 10개사는 CIGNA 그룹, UnitedHealth 그룹, Sun Life 금융그룹, Tokio Marine 미국 생명보험 그룹, Anthem 건강보험회사, Voya 금융그룹, Aetna 생명보험그룹, Health Care Svce Corp Health 그룹, HM 생명보험그룹, Symetra 생명보험그룹 등임